



7월의 기도

1. 장마가 시작하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찾아옵니다.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더욱 힘차게 뿌려져서 세상 모든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시발점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3. 하나님,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해소하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에 평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건강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 저희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주봉, 정정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야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10)

자연 환경에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생을 사는 동안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폭풍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야”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논밭과 집을 휩쓸어버리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홍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나게 하여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만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과연 홍수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홍수에 짓눌려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가 노도(怒濤)와 같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앉아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수에 휘말릴 것인가, 홍수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탄할 때에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생애 속에 무서운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홍수 속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만리장천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오셔서 손닿는 곳에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다가올 때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04년 해외성회

< 몽골 성회 >



연인원 6만여 명이 운집한 2004 몽골 대성회

몽골은 국토 전체가 해발고도 1,600미터에 달하는 고원국가다. 13세기 초 조직화된 군대와 기동성 있는 기마 병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몽골은 아직도 곳곳에 징기스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1924년 몽골인 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가 되어버린 몽골은 70년동안 소련연방(USSR)의 사회주의 제도 아래 놓여 있었다. 그 후 몽골은 국호를 몽골공화국으로 개칭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었다.

몽골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990년 즈음이다. 전체인구의 90%가 라마교를 숭배하는 이곳에서 당시 미국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몽골인은 34명에 불과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몽골이지만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폭풍을 휘몰아치게 했던 '몽골 추수 2004 대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2004년 8월 4-5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에서 열린 '몽골 추수 2004 대성회'는 이를 동안 6만여 명이 참석하는 진기록

을 세웠다. 이는 불교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본 성회에서 참석하신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 중앙경기장에서 결신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몽골 추수 2004 대성회'에 주강사로 나선 DCEM총재 조용기 목사는 작렬하는 태양빛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찬 어조로 두 차례에 걸쳐 영어로 설교했다. 첫째날 조용기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며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몽골교육에 반론을 펼치듯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에 대해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둘째날 성회는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삼삼오오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 든 몽골인들은 전날과 사뭇 다른 표정으로 성회에 참석했다. 한편 몽



①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을 맡은 바트지르갈 극동방송 사장 ② 어릴 적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듣고 말하게 된 순간 ③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

골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 앵흐바야르 성회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 게양식을 하고 양국의 국가가 연주된 후 조용기 목사는 마가복음 10장 46-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둘째날 성회 간증시간은 병 나은 것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아 성회를 위해 투입된 경찰병력으로도 군중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몽골 성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눈앞에 벌어진 광경들에 몽골성도와 몽골 현지 취재진의 눈은 휘둥그레해졌다. 본 성회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몽골선교에 청신호가 밝혀진 시간이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3차원적 환경과 4차원적 환경이 있습니다. 3차원적 환경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물질세계의 환경이고, 4차원적 환경은 영혼이 체험하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옥도 물질세계의 감옥도 영혼의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3차원적 물질세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잡히는 귀신들린 여자가 두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 여자를 고용하여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원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방에 처 넣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눕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마귀는 “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붙잡혀 이렇게 매를 맞으며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말로 참소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합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의 해방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중략)...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중략)...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16절~26절)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지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어서 감옥 전체가 지진으로 뒤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채웠던 쇠고랑이 순식간에 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실제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쇠고랑에 묶여서 영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갖가지 쇠고랑에 채워져 있는 고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일 때 인생의 한밤중에 고통에 대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1. 돌이켜 회개하라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2.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서 마귀의 모든 감옥 문을 다 열려버리고 마귀의 쇠사슬을 깨뜨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2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사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통해 구원을 내려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3. 간절히 기도하라
그 다음 고난당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큰 고통을 당하여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좌절

하고 절망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써 이겨야지 모든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주 고약한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당해 기도하면 그 고난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왜?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4. 믿음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려면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 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경제적인 감옥, 질병의 감옥, 불평과 원망과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런 다음 성령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나쁜 것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죄악에서 절망과 죽음의 쇠고랑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3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1-3)



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인 육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고 장사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말하던 손금이니 관상이니 팔자니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별일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예물을 준비하여 그 별을 따라서 유대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2:11)

동방박사들이 매우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보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황금의(衣), 왕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치료제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 유향이 치료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병들었을 때 유향을 발라 치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향은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 보배함의 예물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모두 다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 일가가 애급 땅으로 피신하여 생활할 비용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